

유럽 노동시장의 새로운 대책

이행 노동시장 IV - 일과 삶의 균형과 적극적인 퇴직

정희정 (에든버러대학교 사회정책학 박사과정)

이 글은 2004년 11월 25일 26일에 걸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된 TLM네트 워크 회의를 소개하는 기획 연재의 네 번째 글로 본 회의의 세 번째 세션인 '일과 삶의 균형과 가사 활동과 관련된 새로운 형태의 이행(Work-life balance and new forms of transitions related to household activities)' 과 네 번째 세션인 '적극적인 퇴직 : 인구학적 변화와 퇴직 이행의 개인적인 선호에 대응하는 새로운 해결책 (Active retirement : New solutions to demographic needs and individual preferences in retirement transitions)' 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개괄적으로 소개한다.

이행 노동시장(TLM) 회의의 세 번째 세션과 네 번째 세션은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여러 이행 형태 중 가사활동과 노동시장 사이의 이행과 이때 나타나는 성별 차이,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퇴장할 시기(퇴직)에 나타나는 이행을 살펴보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런 노동시장의 이행, 가사업무와 노동시장 업무의 통합 정도는 각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나며 이 원인은 각 국가의 경제적·제도적인 요인(예를 들어 가족정책, 세금제도, 급여제도, 보육시설, 노동시간체제, 임금체제, 성별에 따른 임금차별 정도, 기업의 인적자본관리와 연금제도)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이와 같은 이행과 관련된 주된 노동시장 추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남성 가장(male bread-winner)이 주소득원인 가구에서 이중 소득원(dual earner)인 가구로의 변화와 가구형태의 다양화
-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노동시장 진입 연기와 조기퇴직제도 확산과 연금수령 연령이 낮아져서 나타나는 노동시장에서의 조기 퇴장
- 개성화(individualisation) · 개별화의 확산과 전통 가족생활의 가치 변화에 따른 가족 구조의 변화(결혼하는 부부의 감소, 합의 결합(동성부부, 결혼하지 않은 동거 부부 등)의 증가, 이혼율 증가, 가족 규모의 감소, 첫 아이를 갖는 시기 연기, 평균 수명의 연장 등으로 인한 변화)
- 시장이나 국가에 의한 서비스 증가로 인한 가사업무에 투여하는 시간의 감소
- 이런 변화에 따른 개인의 인생 경로의 다양화와 출산율 저하

이 모든 요인은 복지국가와 사회보장체제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 부족의 문제로 부각 되고 있고, 노동시장의 취업률 및 고용률을 상승시키는 것이 모든 유럽국가들의 주요 목적이 되었다. 이런 노동시장의 취업률 향상은 여성과 고령 노동자들의 취업률 향상을 동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며 시작된 이번 세션들은 다음과 같은 세부 목적을 가지고 있다.

- 국가 비교 연구를 통하여 생애주기에 걸쳐 각 가구의 시간 할당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 정책적 구조의 설명
- 구체적으로 생애주기에 걸쳐 나타나는 시간과 소득의 변화가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의 파악
- 각 국가들의 노동시장 퇴장에서 나타나는 이행 파악
- 보다 장기적인 노동시장 참여와 적극적인 퇴직을 위한 정책과 이를 위한 합의 도출 강구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진행되는 연구는 TLM 접근을 사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먼저, 가사업무와 퇴직과 관련된 이행과 관련 제도 정책의 분석은 유형론(typology)을 중심으로 국가간 비교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와 함께 인생의 한 시기에 집중하기보다는 개인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이행을 바라보며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 사이의 연관을 관심에 두며 일관성을 추구한다.

■ 주요 논문 결과 요약

부모의 선호도와 아동보육 시간 분석의 관찰되지 않은 이질성의 중요성 - Joris Ghysels

이 논문은 부모의 아동보육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덴마크, 스페인, 벨기에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 덴마크 부모가 보다 높은 취업률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다른 두 국가의 부모보다 아동 양육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덴마크의 부모의 경우 아이가 더 생길 경우 투자하는 추가 양육시간이 다른 국가들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국가 부모 모두 직장에서 사용하는 시간이 적을수록, 아동이 많을수록, 그리고 아이가 어릴수록 양육에 투자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직장을 가진 여성들은 보통 가정적인, 즉 아동 양육에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배우자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이외 다른 제공자를 통한 양육을 선택하는 부모들은 자신들의 양육의 대체물로 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아이들과 보다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유인책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측정되지 않은 부모들 사이의 이질적인 특성들이 아동 양육 투여 시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양육형태와 관련된 노동시장 이행에는 관찰할 수 있는 요인들 뿐만 아니라 관찰되기 힘든 개인 인생 선택, 선호도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선호도 역시 분석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연급여제도의 사용 - Carlien Hillebrink, Joop Schippers, Pascale Peters & Anneke van Doorne-Huiskes

본 연구는 네덜란드에 1980년대 후반부터 도입된 유연급여제도(Flexible Benefit Plan : FBP)의 사용 양식을 휴가제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유연급여제도는 네덜란드의 기업이나 개별 조직 중심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개별 노동자들이 자신의 급여의 구성을 자신의 선호도에 맞추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임금을 줄여 휴가를 늘리거나, 휴가를 줄여 추후 연금기금에 추가되는 자금을 늘리는 등의 급여의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네덜란드 대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분석 대상 중 약 절반 가량이 FBP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하는 사람과 계약된 노동시간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사용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런 근로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선택할 수 있는 급여의 양 자체가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영구계약과 임시 계약의 경우, 처음에는 차이가 나타나다 추후 그 차이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양 자녀가 있는 부모들 역시 FBP 제도를 사용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는 자녀가 있는 경우 급여의 선택권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진다. 휴가를 다른 급여와 교환하는 양식을 살펴보게 되면, 보통 교직원들은 휴가를 다른, 재정적인 급여와 교환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교수가 행정직원보다 많이 교환하는 반면에,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들이 없는 사람들보다 이런 교환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전후 여성 노동시장 참여의 역동성 - Jan Dirk Vlasblom & Joop Schippers

본 연구는 출산이 여성의 노동시장 공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네덜란드, 독일, 영국의 지난 20년간 내용을 담고 있는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여성의 출산 전후 노동시장 참여 양태를 살펴보고 있다. 결과, 자녀가 있는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노동시장 참여율이 낮은 것뿐만 아니라,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첫째일 경우에도) 노동시장에서의 행동양식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주된 행동양식의 변화는 노동시장 참여율의 저하와 노동시간의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 출산 이후 많은 여성들은 몇 년이 지나야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고, 일을 지속하는 여성의 경우 노동시간을 줄였다. 여성이 지닌 인적자본에 따라 행동양식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인적자본을 보다 많이 지닌 여성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노동시장의 참여가 생애주기 각 시기마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 국가 간의 차이를 살펴보게 되면, 1980~2000년사이 네덜란드의 경우 경력 중단이 사라지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고, 독일의 경우 출산 이후 노동시장을 떠나는 경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국에서는 특별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변화는 제도적인 요인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는데, 네덜란드의 경우 최근 보육서비스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가격이 낮아져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보았다. 이에 비해, 독일의 경우 아동과 관련된 세금 제도와 출산, 육아휴직제도의 변화로 인해 전업주부가 되는 것이 일과 가사업무를 병행하는 것보다 유리하도록 만들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유럽의 노동시장 통합의 양식 : 젠더와 생애주기 접근 - Dominique Anxo, Inmaculada Gebrian, Colette Fagan, Gloria Moreno & Luis Toharia Cortés

이 연구는 가구 구성원들의 노동시장 참가 선택과 정도, 그리고 생애주기에 걸쳐서 나타나는 노동에서의 젠더 구분이 각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원인을 찾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각 국가의 제도적 구성과 정책방향이 주요 원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유럽 7개국(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영국)을 유럽가구패널조사(ECHP) 자료를 근거로 분석하였다. 여기에서 사용한 분석틀은 가족주기접근법(family cycle approach)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가구의 유형을 생애주기에서 나타나는 시기와 이행을 중심으로 나누는 방법을 일컫는다. 이 연구는 가구 유형을 7개 종류로 나누었는데, 자녀가 없는 젊은 싱글, 자녀가 없는 동거 커플(여기서 커플이라고 칭하는 것은 결혼하지 않은 동거부부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자녀가 있는 성인(아동의 나이(0~6, 7~12, 13~17)에 따라 3종류로 다시 구분된다), 같이 사는 자녀가 없는 중년 커플, 60세 이상의 노년 커플 등이 그것이다. 분석 결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 유무와 참가 정도는 가족 형성과 어린 자녀의 유무에 크게 영향 받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또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크게는 노르딕 국가의 보편적 가장(universal breadwinner) 모형, 수정된 가장(modified breadwinner) 모형, 지중해 국가들의 퇴장 또는 전시간근무(exit or full-time) 모형, 그리고 모성 파트타임(maternal part-time) 모형 등의 군집이 나타났다. 노르딕 국가군을 대표하는 스웨덴의 경우 개인들이 생애에 나타나는 다양한 상황과 책임에 따라 노동시간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다른 국가보다 많다고 분석된다. 다른 국가의 경우 노동시간을 시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기회는 보다 제한되어 있는데, 이는 생애주기의 특정 시기에만 제한되어 있거나, 또는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직된 노동시간 규제는 여성 노동시장 수요를 제한시킬 뿐만 아니라 남성 가장 모형을 보다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ICT와 노령 노동자들 - Jaap de Koning & Arie Gelderblom

이 논문은 ICT(Information Computer Technology : 컴퓨터정보기술)가 노령 노동자들의 노동시장 지위에 어느 정도 부적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인쇄와 도매 부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ICT에 대한 태도와 이의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를 조사했다. 특히

ICT를 사용하는 정도를 중요 변수로 보았다. 또한 직무성과를 임금수준으로 보는 이전 연구들과는 달리 보다 직접적인 지표를 사용하였다(해당 노동자에게 직접 느끼는 지난 5년간의 성과 변화와 상사에게 성과 변화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물어보았다). 그 결과, 노령 노동자들은 보다 젊은 노동자들에 비해 ICT를 사용하는 빈도가 낮고 보다 쉬운 ICT를 사용하며, 복잡한 ICT를 사용하는 데 보다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ICT의 사용과 사용 수준이 이들의 직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ICT를 활용하는데 겪는 어려움은 노령 노동자들에게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ICT 훈련 프로그램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공식적인 ICT 훈련은 유의미한 변화를 가지고 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와 유럽의 노령 노동자들의 취업력 - Roberto Leombruni & Claudia Villosio

이 글은 이탈리아 노령 노동자들의 노동시장 참가율이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다. 이 문제의 원인을 취업능력의 부족, 아니면 기타 제도적·인구학적인 구조 또는 노동 수요 국가 경제상태 등에서 찾고 있다. 이를 위해 유럽가구패널조사(ECHP)를 사용하여 개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노동시장 참가 선택, 노동시장과 관련된 개인의 특성, 그리고 국가 경제상태가 노령자들의 노동시장 참가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개인들의 과거 노동시장에서의 위치가 현재의 참가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그 영향이 보다 크게 나타났다. 가족부양의 책임도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는데, 이탈리아의 노령자 4명 중 1명은 가족을 부양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이는 노동시장 참가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건강 등의 요인 역시 개별 노동자의 노동시장 참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결과요약 및 논의

본 세션의 두 주제는 최근 유럽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중요한 이슈들이다. 일과 삶의 균형의 경우,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 증가가 필수적인 노동시장의 목표로 존재하면서 이에 따른 출산율 저하의 문제 역시 모든 국가들이 대응해야 할 중요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회의의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비록 가족 형성과 일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반 제도(공공보육시설이나 서비스, 면세제도, 모성,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 법적 보호 등)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 정도가 각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를 보조해 주는 제도들이 여성의 노동시장참가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긴 하지만, 남녀가 사업무 분담에는 큰 변화를 가지고 오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본 회의에서는 더 이상 여성의 남성화를 보조해 주는 제도들은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했고, 남성의 여성화(예를 들어 법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는 제도 등)가 이루어져야 출산율 문제와 남녀 노동 분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KLI**

참고문헌

- Anxo, D. & Christine, E. “Irreversibility of Time, Reversibility of Choices? A Transitional Labour Market Approach”. Position paper for Work Package 6,7 in TLM.NET Conference Quality in Labour Market Transitions: A European Challenge 25~26 November, 2004 Royal Academy of Science, Amsterdam.

요약 논문 원문 제목

- Joris Ghysels “Flavouring children: Parental preferences and the importance of unobserved heterogeneity in the analysis of childcare time”
- Carlien Hillebrink, Joop Schippers, Pascale Peters & Anneke van Doome–Huiskes “The use of a flexible benefit plan”
- Jan Dirk Vlasblom & Joop Schippers “The dynamics of female employment around childbirth”
- Dominique Anxo, Inmaculada Cebrian, Colette Fagan, Gloria Moreno & Luis Toharia Cortés “Patterns of Labour Market Integration in Europe : A Gender and Life Course Perspective”
- Jaap de Koning & Arie Gelderblom “ICT and Older Workers: No Unwrinkled relationship”
- Roberto Leombruni & Claudia Villosio “Employability of older workers in Italy and Europe”